2021 년 7 월 미얀마 기도서신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

긴급기도서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대면 예배를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그곳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긴급기도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상황

1 저희 부부는 지난 5 월 19 일에 미얀마 입국 특별허가서를 제출한지 2 달이 지났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을 미얀마 대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2 달이면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미얀마 정국의 불안정과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허가서의 가부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약 3 달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속히 사역지로 귀임하고자 하나 모든 일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미얀마의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 중, 고, 대학교와 병원 (몇몇 공립병원 제외)은 폐쇄되었고, 은행은 예금은 할 수 있으나 인출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국민들의 생활은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3.한인동포들이 현재 약 2,000 여명이 사업상 이유로 현지에 머물러 있는데 근래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업을 위해 버티고 있는 동포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동포 중 세 분이 코로나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교민들이 불안한가운데 있습니다. 교민들은 자체적으로 산소통과 산소발생기 구입을 위해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기금을 모아서 더 이상의 희생자를 줄이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코로나 상황은 현재 전체 검사자의 약 40%가 확진자로 판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곤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화장터에 관이 모자라서 시신을 천에 싸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지의 성도들도 코로나와 생활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가 공포되어서 밖에 나가서 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터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제목들

(1)사역자 아웅투타 아내는 코로나로 6 일째 고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녀의 모친 또한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산소 농도가 70 이하로 내려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2)또한 시뻰 전도처 (우딴쉐 목회자) 고아원에 4 명의 아이들이 코로나와 우기 때 모기로 발생하는 뎅기열로 몇 개의 진통제와 해열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뻰우린 전도처(술리안무앙 목회자)의 사모는 뎅기병으로 고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4) 협력 사역을 했던 죠민 목회자 아내가 코로나로 고열과 극심한 두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산소농도가 내려가면 재빨리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기도제목과 같이 하루속히 성도들이 병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 생활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부탁들 드립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의 불안한 정치상황이 종식되고 선교사역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은 7 월 19 일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 드림

연락처: 한국전화번호: 010 – 4360 – 0694,
카톡: peterykkimaus 이메일: peterykkim@hotmail.com 농협 302-1337-9311-91
국민은행 806-21-0291-801
파송교회: 성서침례교회(행당동)